

# 과도한 구주매출에 실적논란... 펌텍코리아, IPO '먹구름'

증권신고서상 시장점유율 22% '모회사 매출' 빼면 사실상 16.8% IPO 64만주 중 구주매출 62만주 매출액 1510억... '안정수익' 강점

오는 7월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펌텍코리아가 과도한 구주매출로 도마위에 올랐다. 이미 한차례 회사 매각 설이 불거진 바 있어 이번 기업공개(IPO)가 결국 대주주의 자본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펌텍코리아는 오는 18~19일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내달 초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주당 공모 희망가는 24만~27만원으로 공모규모는 1536억~1728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 기업가치 산정 논란

펌텍코리아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중 펌텍코리아의 시장점유율은 22.0%로 연우(30.3%)에 이어

〈최근 4개분기 실적 기준 유사회사 PER 산정〉

(단위: 백만원, 주, 원, 배)

구분	연우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회계기준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K-IFRS 연결
적용 당기순이익	7,361	32,621	42,307	8,972
발행주식총수	12,398,000	10,049,509	22,346,698	10,680,000
주당순이익	594	3,246	1,893	840
기준주가	28,940	110,500	64,200	20,100
PER	39.25	34.38	33.12	26.53
적용 여부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PER	33.32			

\*적용 당기순이익은 최근 4개분기(2018년 2분기~2019년 1분기) 기준 지배지분순이익.

2위다.

여기서 펌텍코리아는 관계회사인 부국티엔씨의 매출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시장점유율을 높였다. 사실상 펌텍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16.8%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펌텍코리아가 시장점유율을 높아보이게 하기 위해 다소 무리한 보고서를 만든 것 같다"면서 "연결 매출로도 안잡히는 모회사의 매출을 끌어다쓰면서 '펌텍소계'로 점유율을 설명하는 방식은 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펌텍코리아의 주가수익비율

(PER)도 높게 산정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펌텍코리아가 PER 산정을 위해 비교한 기업은 ▲연우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 등 4개사다. 지난 2018년 2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이들 기업의 실적을 반영해 평균 PER 33.32배를 산출했다. 이를 반영한 주당 평가가액은 40만 1318원, 여기에 할인율(32.72%~40.20%)을 적용해 공모가를 산정했다.

하지만 비교기업군 선정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우를 제외

한 코스맥스, 한국콜마, 코스메카코리아는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OEM), 생산자개발방식(ODM)을 주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화장품 용기 생산업체와는 사업 구조가 다르다. 또 코스맥스와 한국콜마의 실적은 펌텍코리아보다 2~4배 가까이 많다.

다만 증권사 IB부문 관계자는 "적당한 후보군이 없을 땐 비슷한 업종과 비교하기도 한다"면서 "다소 가치가 높게 산정됐지만 펌텍코리아의 수익성이 높고, 할인율도 높게 적용했기 때문에 공모가는 수요예측에서 적절하게 평가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 구주매출이 97%

펌텍코리아는 이번 IPO에서 총 64만주를 공모한다. 이 중 구주매출이 62만 191주로 전체의 96.90%에 달한다.

특히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주식이 11만주, 자사주는 37만주를 모두 처분한다. 자사주엔 보호예수도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사의 성장성을 기대하고, 주가 상승을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주식을 구주매출 방식으로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사모펀드로부터 14만주의 구주가 나온다. 이는 펌텍코리아가 아닌 모회사인 부국티엔씨가 사모펀드와 맺은 계약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6년 부국티엔씨는 케이티씨 피그로스채프 2011의 2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교환사채 28만주를 발행했다. 이 중 절반인 14만주에 대한 교환권을 행사했고, 이번 공모 시 구주매출을 통해 처분하는 것이다. 나머지 14만주에 대해서도 교환권 행사를 통해 시장에 나올 경우 주가가 하락할 위험이 있다. 부국티엔씨의 대표는 펌텍코리아 대표와 형제관계다.

한편 펌텍코리아는 안정적인 수익성이 강점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1510억원, 영업이익은 24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 27.8%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7%다. 치약처럼 생긴 튜브에 펌프 용기를 붙인 '펌프튜브', 팩트 케이스 안에 구멍을 뚫어 누르면 과운데이션이 나오는 '에어리스 콤팩트'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업계에서 압도적인 수익성을 보이고 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증권 다이제스트



### 한국투자증권

### 연 10% DLS 50억 모집

한국금융지주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7일까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최근월 선물, 브렌트유 최근월 선물(Brent), 에스앤피500(S&P5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텝다운형 'TRUE 파생결합증권(DLS) 1435호'를 총 5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해당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스텝다운 구조로 6개월 마다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5%(36개월) 이상이면 연 10.00%의 수익을 지급하고 상환된다. /손업지 기자

# 역세권+숲세권... 미세먼지 없는 '똑똑한 아파트'

## 대림산업 | e편한세상 시민공원 |

부산 전포1-1구역 재개발 사업  
1401가구 중 856가구 일반분양  
3.3㎡당 1350만원... 13일 청약



e편한세상 시민공원.

대림산업은 오는 7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동에서 전포1-1구역 재개발 사업인 'e편한세상 시민공원'을 분양한다고 4일 밝혔다. 59~107㎡ 1단지 1286가구, 2단지 115가구 등 1401가구 중 조합과 임대를 제외한 856가구가 일반분양 분이다.

전용면적별로는 1단지 ▲59㎡ 315가구 ▲74㎡ 71가구 ▲84㎡ 384가구 ▲99㎡ 20가구 ▲107㎡ 23가구, 2단지 ▲59㎡ 43가구로 구성된다.

e편한세상 시민공원은 단지명답게 부산시민공원이 가까이 있다. 이밖에 송상현광장, 라이온스 공원 등이 가깝고 단지 뒤쪽으로는 황령산이 위

치해 있으며 공원을 따라 조성된 산책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부산에서도 중심입지에 위치해 부산지하철 1호선 부전역과 양정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로 1·2호선 환승역인 서면역, 1호선 시청역까지 한 정거장에 이동할 수 있다. 또한 단지 인근 중앙대로를 통해 부산역, 부산항, 부산시청 등 부산 내 주요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동

한세상 단지 중 최초로 적용된다. 실내에는 '스마트 공기제어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실내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 농도에 따라 환기와 공기청정 시스템이 가동된다.

단지 외부에는 미세먼지 상태를 알리는 신호등과 어린이 놀이터에 미스트 자동 분사시설이 설치돼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지상 동출입구마다 설치된 에어커튼이 미세먼지와 외기유입을 차단하기 때문에 쾌적한 환경이 유지된다.

청약 일정은 오는 12일 특별공급 청약에 이어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350만원대로 부산진구는 지난해 12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매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다. 대출 규제와 청약 1순위 자격에서도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주택전시관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번지에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KB증권

### able 발행어음 5천억 완판

KB증권은 지난 3일 판매개시 한 'KB able 발행어음'이 하루만에 완판(5000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KB증권은 "1회차 원화 5000억원을 발행할 것을 계획했고, 고객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조기완판됐다"며 "빠른 시일 내에 2회차 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KB증권은 올해 2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운용자산이 확보되는 대로 즉시 추가발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손업지 기자

## 184개 투자자문사 순익 73억... 93% ↓

작년 75곳 흑자 109곳 적자

지난해 투자자문사들의 실적이 증시 침체에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 사업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 중 184개 전업 투자자문사의 순이익은 73억원으로 전년 대비 92.6% 급감했다.

코스피지수가 지난해 3월 2445.85에서 지난해 말 2041.04까지 하락하면서 고유재산운용순익은 물론 계약고감소로 수수료수익도 줄었다.

회사별로는 전체 184개사 중 75개사

는 흑자, 109개사는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회사 비율은 59.2%로 전년 대비 16.3%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상위 10개사의 당기순이익이 274억원으로 업계 전체의 순이익을 초과하는 등 이익편중 현상이 심화됐다. 수익성도 악화됐다. 전업 투자자문사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3%로 전년 대비 15.7%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업 투자자문사의 총 계약고(일임·자문)는 15조2000억원으로 작년 3월 말 대비 14.3% 늘었다. /양상미 기자

## KB자산운용 '글로벌착한투자ESG펀드' 출시

KB자산운용이 'KB글로벌착한투자ESG펀드'를 출시, 4일부터 KB국민은행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ESG 투자란 투자기업 선정 시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적책임(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을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성장성에 투자하는 전략이다.

'KB글로벌착한투자ESG펀드'는 ▲펀더멘탈 리서치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종목에 압축 투자해 알파를 추구하면서도 ▲ESG 역



티브 통합전략을 통해 기업가치 평가단계부터 최종포트폴리오 구성까지 ESG 요소를 반영해 수익성과 사회적변화를 동시에 추구한다. /손업지 기자